

# 1. 1945년의 南韓政局

—序論에 대신하여—

金 弘 宇

<目 次>

- |                 |                |
|-----------------|----------------|
| 1. 人共의 출현       | 3. 美軍政과 人共의 대립 |
| 2. 임시정부와 人共의 대립 | 4. 맺 는 말       |

## 1. 人共의 출현

1945년 8월 15일 정오에 일본국왕 히로히토(裕仁)는 美國·英國·中國·蘇聯 등 연합국의 「포츠담」共同宣言을 수락하는 「降伏詔書」를 방송하였다. 이 방송에서 히로히토는 “前日에 美英兩國에 宣戰한 所以”가 “帝國의 自存과 東亞의 安定을 庶幾함에 不遇하고 他國의 主權을 排하고 領土를 犯함은 勿論 朕의 뜻이 아니었다”고 변명한다. 이어서 그는 “今後 帝國의 반올바 苦難은 勿論 尋常이 아닐”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모름지기 舉國一致 子孫相傳하여 굳게 神國의 不滅을 信하고 任重道遠함을 念하여 總力을 將來의 建設에 傾하고 道義를 厚케하여 志操를 強하게 하여 盟誓코 國體의 精華를 發揚하여 世界에 進運 뒤떨어지지않을 것을 期하라. 爾臣辰은 朕의 意를 體하라.<sup>1)</sup>

1) 國史編纂委會, 『資料 大韓民國史』 I (1968), pp.8-9, (이하에서는 I로 略함).

여기서 한가지 지적할 점은 당시 일본정부는 “포츠담 共同宣言”을 “무조건 항복”이 아닌, “조건부 항복”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다시말하면 “天皇制의 존속”을 전제로 한 “降伏”으로 인식한 점이다. 이것은 1945년 8월 10일 「포츠담」 선언을 수락한 일본정부의 외교문서를 보면 알 수 있다. 즉,

帝國政府는 一九四三年 七月二十六日 「포츠담」에서 米, 英, 支三國政府 首腦者에 依하여 發表된 後 蘇聯政府의 參加를 本 共同宣言에 든 條件을[과?] 右宣言은 天皇의 國家統治의 大權을 變更하는 要求를 包含하여 있지 않은 了解下에 承諾함.([ ]안의 것은 필자의 것임)<sup>2)</sup>

어찌됐든 일본의 “降伏”과 더불어 한국은 해방되었고, 이때부터 한국 정치는 숨가쁘게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해방 바로 다음날인 8월 16일 오후 1시, 呂運亨은 휘문중학교 운동장에 참집한 5천여 군중 앞에서 약 20여분에 걸쳐 감격어린 해방의 제일성을 터뜨렸다. 그의 연설 요지는 다음과 같다.

조선민족해방의 날은 왔다. 어제 十五日 아침 여덟시 遠藤 조선총독부정무총감의 초청을 받아 ‘지나간 날 조선·일본 두 민족이 합한 것이 조선민중에 합당하였는가 아닌가는 말할 것이 없고 다만 서로 헤어질 오늘을 당하여 마음 좋게 헤어지자. 오해로써 피를 흘린다던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민중을 잘 지도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나는 이에 대하여 다섯가지 요구를 제출하였는데 즉석에서 무조건 응락을 하였다. 즉

- 一, 전조선 각지에 구속되어 있는 정치 경제범을 즉시 석방하라.
- 二, 집단생활인만치 식량이 제일 문제이니 八, 九, 十의 셋개월간 식량을 확보 명도하여 달라
- 三, 치안유지와 건설사업에 있어서 아무 구속과 간섭을 하지 말라
- 四, 조선안에 있어서 민족해방의 모든 추진력이 되는 학생후련과 청년조직에 대하여 간섭을 말라
- 五, 전조선 각사업장에 있는 노동자를 우리들의 건설사업에 협력시키며 아무 괴로움을 주지 말라

2) I, p.6.

이것으로 우리 민족해방의 첫 걸음을 내디디게 되었으니 우리가 지난날에 아포고 쓰렸던 것은 이 자리에서 모두 잊어버리자. 그리하여 이 땅을 참으로 합리적인 이상적 낙원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이때 개인의 영웅주의는 단연코 없애고 끝까지 집단적 일사불란의 단결로 나아가자. 머지않아 각국 군대가 입성하게 될 것이며 그들이 들어오면 우리 민족의 모양을 그대로 보게 될 터이니 우리들의 태도는 조금도 부끄럽지 않게 하여야 한다. 세계 각국은 우리들을 주목할 것이다. 그리고 백기를 든 일본의 심흉을 잘 살피자. 물론 우리들의 통쾌한 마음은 금할 수 없다. 세계 신문화 건설에 백두산 아래에 자라난 우리민족의 힘을 바치자. 이미 전문대학 학생의 경비팀은 배치되었다. 이제 곧 여러 곳으로부터 훌륭한 지도자가 오게 될 터이니 그들이 올 때까지 우리는 힘을 적으나마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방점은 필자의 것임)<sup>3)</sup>

呂運亨의 연설에서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머지않아 각국 군대가 입성하게 될 것”이라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어느 나라 군대가 들어오느냐 하는 것은 곧 어떤 형태의 정부가 세워지느냐 하는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었다. 당시의 지배적 분위기로는 소련군이 서울에 입성하리라는 것이었다. 8월 17일자 每日新報는 이와 같은 분위기를 잘 전하고 있다. “항간에는 소련군이 경성 시내에 진주해 들어온다느니 혹은 몇시에 입성식을 한다느니 미국군이 어느 항구에 상륙하였다는 등 여러가지 낭설이 분분한데 그것은 모두 사실무근이고 아직 소련군이 어느날 입경할런지 또는 연합군이 과연 조선에 상륙할런지 전연 알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수일내로 입경한다는 확보는 없고 오는 二十일 이후가 아니면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없다. 지금까지의 정보로는 소련군이 들어온다는 것과 그 사령관은 「마살 와스렐스키」장군이라 한다. 그리고 모모 지점에서 일본군과 충돌하였다는 소식도 믿을 수 없는 말이고 앞으로 입경 혹은 상륙할 경우에는 확보가 도달되는 대로 보도될 터이니 일반은 근거없는 소식을 믿지말고 경거망동하지 말기로 바란다한다.” 그러나 이와같은 분위기 —소련군의 서울 진주가 거의 확실시되던 분위기—는 일주일일이 지난 8월 24일자 每日新報에 “朝鮮은 美國과

3) I, pp.11-12.

蘇聯의 分割占領下에 軍政을 시행케 될 것”<sup>4)</sup>이라는 보도가 나들면서 점차 바뀌어지기 시작하였다. 다른 한편 위기감으로 위축되었던 사회적 분위기도 다소 활기를 되찾는 듯이 보였다.<sup>5)</sup> 그것은 “公演을 中止하였던 各種興行이 八月二十五日부터 재연케 되”<sup>6)</sup>였다는 보도로 미루어 알 수 있다. 9월 1일에는 美軍이 서울에 진주한다는 일본정부의 공식발표가 있었고,<sup>7)</sup> 9월 2일에는 일본정부가 조인한 항복문서에 근거하여 聯合軍司令部의 “一般命令第一號”가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38이북에는 소련군이, 38이남에는 미군이 각각 진주하게 되었다.

美軍의 진주를 전후한 南韓의 정치상황을 살펴보면, 첫째 무수한 정당·정치집단의 난립을 들 수 있다.<sup>8)</sup> 둘째 이들 제 정치집단중 특히 2개의 집단이 스스로를 “政府” 또는 “國家”로, 다시말하면 “政權機關”으로 자임하였다는 것이다. 하나는 金九가 이끄는 “大韓臨時政府”(略하여 “臨政”이라 함)이고, 다른 하나는 呂運亨 중심의 “朝鮮人民共和國”(略하여 “人共”이라 함)이었다. 臨政은 “1919년 上海의 臨時政府가 改憲의 절차를 밟아 露領의 大韓國民議會政府를 대동 흡수 정비하고 漢城臨時政府와 통합함으로” 성립된 것으로서, 臨政은 그후 “27년간, 즉 1945년 8월”<sup>9)</sup> 해방이 되기까지 “主權없는 韓民族”의 대표적인 獨立運動機關<sup>10)</sup>

4) I, pp.27-28.

5) 당시 위기적 분위기는 8월 18일 呂運亨이 테러를 당했던 사실에서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심지연, 『해방경국은생사 I』(한울, 1986) p.23.

6) I, p.28.

7) I, p.35.

8) 이와 같은 난립상은 당시에 살포된 전단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9월 17일자로 된 한 전단에 의하면,

해방이 된지 “於焉一朔”이 지난 오늘, …冷靜히 우리의 足跡을 回顧할 때 慚愧 어찌 이에 더함이 있으랴. 무엇보다도 祖國의 再建을 爲하여 大同團結의 精神 밑에서 全民族의 強力한 態勢를 完備함이 우리의 最大且唯一任務임에도 不拘하고 어찌 뜻하라 마땅히 發足進展되어야 할 統一旗幟는 四分三裂의 亂舞속에서 그 軸竿을 잃어버리고 各種의 政黨 乃至 政治團體가 層生疊出하여 一見 群雄割據의 前奏曲을 演出하는 듯 民衆으로 하여금 極度の 不安과 混迷속에 彷徨케 함이 오늘의 實相이 아닌가.  
I, p.116.

9) 李炫熙, 『大韓民國 臨時政府史』(集文堂, 1982), p.14.

10) 金榮秀, 『大韓民國 臨時政府 憲法論』(三英社, 1980), p.10.

으로 그 “法統”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해방과 더불어 臨政의 이와같은 “法統”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도전은 “人共”을 중심으로 한 일단의 정치세력으로부터 나타났다.

“人共”은 해방직후 “國民生活의 解決과 治安維持의 確保”를 목적으로 呂運亨이 조직했던 “朝鮮建國準備委員會”<sup>11)</sup>(略하여 “建準”이라 함)가 9월 6일에 소집된 建國準備委員會 全國人民代表者大會에서 「朝鮮人民共和國」臨時組織法案을 상정·통과시킴으로 출현하였다.<sup>12)</sup> “建準”의 활동은 일차적으로 치안유지에 집중되어 있었다. 당시 建準의 위원장 呂運亨에 의하면, 建準의 성격과 사명은 “첫째 치안을 유지함임요 둘째는 모든 건국의 소요되는 힘과 자재와 기구등을 잘 보관하고 육성하여 새로 탄생되는 국가를 되도록 건전하게 건설하는 것”이었다. 呂運亨은 당면문제와 관련하여 建準의 활동에 대해 이렇게 부연한다.

…치안유지에는 치안대와 武衛隊를 차례로 조직 사용하는 한편 기왕에 있는 町里組織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요 대중의 식량확보에는 최대한 노력을 하기로 합니다. 그 외에 일반 생활필수품도 되도록 원활을 도모하는 데인데 각 방면에 잠겨있는 모든 물품은 되도록 빠지지 않도록 각각 그 현지에서 보관하는 방침을 진행중입니다.

또 교통 통신 금융기관에 대하여서도 이미 책임없[있?]는 지위에 있는 제사의 자발적 협력을 얻어서 지금도 매일같이 그 대책을 강구하는 도중에 있는데 이 문제는 상당한 난관에 부딪칠 것을 각오할 마이나 반드시 뚫고 나아갈 길이 있을 것입니다.…<sup>13)</sup>

建準의 부위원장이었다던 安在鴻 역시 그의 첫 라디오 방송을 통해 “各界를 代表할 同志들”이 “朝鮮建國準備委員會를 結成하”여 “新生朝鮮의 再建設問題에 關하여 가장 具體的 實際的인 準備工作을 進行키로” 합의하였다고 建準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sup>14)</sup>

建準의 활동은 8월 16일 서울 일원에 “絕對的 自重과 安靜”을 호소하

11) I, pp.51-52.

12) I, p.56.

13) I, p.19.

14) I, pp.12-13.

는 전단을 살포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였다. 같은날 建準은 조선인 경찰관이 중심이 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보안대를 조직하여, 16일 밤부터 각 요소의 치안을 담당케 하였고,<sup>15)</sup> 18일에는 학생층과 종래의 警防團을 각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개편하여 治安隊를 편성하였다.<sup>16)</sup> 또한 食糧營團 臨時運營委員會를 조직하여 식량확보와 식량사무를 관장토록 하였다.<sup>17)</sup> 8월 18일자 「每日新報」는 당시 建準의 “表情”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胎動하는 朝鮮 —建國委員會 本部 表情—

위대한 새 조선의 탄생을 앞두고 세기의 진통을 계속하고 있는 桂洞의 建國準備委員會는 연일연야 눈코 뜰새없이 바쁘다. 주위에 물려드는 群衆도 흥분을 진정하고, 이제는 학도치안대의 어마 어마한 경위 속에 싸여서 착착 제반 시책이 구성되고 있다.

고원한 이상 아래 구상을 짜내는 조선 건설사업은, 우리 三千萬 民族의 행복을 무엇보다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 본부에 새벽부터 文化 思想 經濟 敎育界의 저명 人士가 연달아 드나든다. 신문기자반, 사진반, 영화 촬영반, 방송반 등의 자동차 오토바이가 끊일새 없이 드리 달는다.

이웃 어느 부인은 죽을 췌어 이고오고, 어느 할머니는 밥을 해이고 온다. 또 어느 집 부인네는 설탕물에 꿀물 타서 쟁반에 받쳐 들고 와서 <선생님 잡수시게 해주셔요>하고 쟁반을 내놓고 자회를 감춘다. 또 어느 청년은 가벼운 주머니를 기우려 기금으로 바치고 간다. 어제가 이만한 우리들의 단결력과 애정이 숨어 있었던고.

밤이 깊어도 환하게 켜진 불빛은 꺼질 줄을 모르고 그래도 진통을 계속한다.<sup>18)</sup>

다른한편 建準은 단순한 자발적 치안유지의 활동을 넘어서서 정권기관으로서의 기반확충에도 골몰하였다. 그것은 대체로 “治安隊”를 조직한 8월 18일경 부터라고 생각된다. 每日新報 8월 18일자 보도에 의하면 “建國準備委員會, 國民에게 建國工作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지령하

15) I, p.12.

16) I, p.20.

17) I, p.20.

18) 金大商, “8·15 直後の 政治現象 : 建國準備委員會에 대한 再照明” 『創作과 批評』 (1977, 겨울), pp.293-294에서 재인용.

다”라는 題下에 “建國準備委員會에서는 三千萬同胞에게 指令을 發하여 建國工作에 全員이 積極的으로 協力할 것을 要請하였다. …指示內容은 다음과 같다.

一, 어느 期間까지 우리는 自發的으로 自治手段을 講究하여야 하겠다.

一, 이 自治手段은 어디까지든지 平和的이라야 되겠다.

一, 모든 公私機關 機能을 確保하기 爲하여 所屬人員은 現職場을 嚴守하여야 되겠다.

一, 各員은 各其 職域에서 積極的으로 建國準備委員會工作에 協力하여야 되겠다.

建準은 특히 각 “職域”에 편성될 治安隊의 명칭과 조직에 대해 자세히 지시하고 있다. 즉 “自治機關의 名稱은 建國何何邑(面) 公安隊로 하되 各其 地方有志가 中心이 되어 青年層 學徒等을 動員하든지 從來의 警防團을 改編組織하여도 無妨하겠다. 그리고 組織이 完了된 時에는 建國準備委員會에 連絡함이 좋겠다.”<sup>19)</sup> 8월 26일에는 建準企劃部全鮮職域自治組織本部에서 全鮮 “각 회사 공장등 지역 종업원들에게 격[檄文]을 발하여 지역별 자치회를 시급히 조직하여 자원확보와 앞으로의 운영에 만전을 다 할 것을 요망하는 한편 본부와의 연락을” 촉구하였다.<sup>20)</sup>

9월 1일에는 建準第一回委員會開催를 위하여 국내 135명의 인사에게 초청장을 발송하였고, 2일에는 “宣言”과 “綱領”을 제정·발표하였다. 이 “宣言”은 “치안유지”보다는 “정권수립”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점에서 특히 주목을 끈다. 이 “宣言”에 의하면, 建準은 첫째 “國內의 進歩的 民主主義的 여러 勢力”들이 오랫동안 “渴望”해온 “統一戰線의 結成”을 구체화시킨 결과라는 것이다. 둘째 建準은 “各層各界에 完全히 開放된 統一機關”이지만 “混雜된 協同機關은 아니”라는 점이다. 셋째 建準은 국가건설의 “準備機關”이라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眞正한 民主主義的 政權으로 再組織하기 爲한 새 國家建設의 準備機關”이라는 것이다. 넷

19) I, p.20.

20) I, p.28.

제 새로이 수립될 “政權은 全國의 人民代表會議에서 選出된 人民委員으로서 戰取될 것이며,” “臨政”과 같이 “그동안 海外에서 朝鮮解放運動에 獻身하여 온 革命戰士와 그 集結體에 對하여서는 適當한 方法에 依하여 專心的으로 맞이”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 “宣言”의 내용중 특히 마지막 항목 즉 “人民代表會議” 개최는 建準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명백히 “臨政”에 의한 정권인수를 거부하고, 이에 대신할 새로운 정권창출의 기반으로서 人民에 의해 선출된 “全國의 人民代表會議” 개최를 제안하고 있기 때문이다.<sup>21)</sup>

9월 4일 建準은 第一回委員會를 개최하여, 委員長 呂運亨과 副委員長 安在鴻을 유입시키는 한편, 副委員長 一名을 증원하여 許憲을 추대·선출하였다. 특히 이날의 서기국 보고에 의하면, “委員會의 事業은 民衆들의 絶對支持아래 着着” 진행되고 있으며, “四日 現在까지 本部와 緊密한 連絡을 하고있는 支部만 百四十個所가 된다고” 한다.<sup>22)</sup> 드디어 9월 6일, 建準은 경기여교 강당에서 “全國代表 一千餘名”이 모인 가운데 “全國人民代表者大會”를 개최, “「朝鮮人民共和國」組織 基本法草案을 逐條” 심의하여 “多少의 修正을 加”한 뒤 “通過”시켰고, 이어서 “五十五名”의 “全國人民委員”과 “二十名”의 “候補委員” 그리고 “十二名”의 “顧問”을 각각 선출·발표하였다. 발표된 “全國人民委員” 55명의 명단 가운데에는 “李承晚”, “金九”, “金奎植” 등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다.<sup>23)</sup>

55명의 전국인민위원의 선출경위에 대해서는 이틀후인 9월 8일에 소집된 제 1회 인민위원의 회의 “經過報告”가 밝히고 있다. 이 “報告”에 따르면 “非常한 事態에 直面하여 平常한 時期와 같은 民主主義의 選舉方法에 依한 代表選出은 事實上 不可能”하다는 판단하에, 한편으로는 “建準의 全國的 組織을 最大限”으로 “動員”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海

21) I, pp.43-44.

22) I, p.52.

23) I, p.56.



외의 諸同志들과도 힘을 다하여 連絡한 結果, 多數한 海外代表와 海外將兵團 〇〇名の 參加를 얻어 人民代表大會를 개최했던 것이며, “그들의 全員一致로 五十五명의 委員”을 “選出”하게 되었다고 한다.<sup>24)</sup>

또 이날 즉 9월 8일 회의에서는 이상의 “經過報告” 외에도, 1. “各部 委員 選舉”를 “呂運亨 許憲 兩人에 委囑키로 可決하였고,” 2. “各機關 接收 臨時委員 選出”은 “呂運亨 許憲 崔容達 三人에게 一任키로 하고,” 3. “宣言” 및 “政綱”의 “起草委員으로 李康國 朴文奎 鄭泰植 三人”을 선임, “可及的”最“短時日內에 委員會에 提出”토록 결의하였다.<sup>25)</sup>

3일후인 9월 11일에는 “「朝鮮人民共和國」京城市人民委員” 101명의 명단을 발표하였고,<sup>26)</sup> 그 다음날인 12일에는 建準주최의 “美軍歡迎市街 行進”이 대대적으로 거행되었다. 이날의 행진에는 “학도대 학병본부 공장노동자등 二十餘團體 약 一萬數千名” 정도가 참여하였다. 이들은 “美蘇·支·英 등 연합국의 국기와 太極旗를 들고 오후 1時半에 경성運動場에 모이어 조선히otel을 지나 태평통과 광화문통으로” 행진하였다.<sup>27)</sup>

9월 14일에는 人共의 “中央人民委員會”가 작성한 “宣言 政綱 施政方針”과 人共의 “政府部署”가 각각 발표되었다. “中央人民委員會”가 발표한 “宣言”에 따르면, 人共이 수립된 “九月六日”은 우리 민족이 해방된 “八月十五日”과 더불어 “朝鮮民族解放史上에 있어서 劃期的인 날”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바로 이날 “全國人民代表會議가 開催되었”으며, “이大會에서 朝鮮人民共和國”이 “비로서 發生하였”고, “政府를 組織하고 이를 運營할 人民委員”을 “選出”하였기 때문이다. 이어서 이 “宣言”은 다음과 같은 투쟁노선을 밝히고 있다: “...우리는 ...우리들이 選出한 革命同志와 人民大衆의 基本的 要求에 應하여... 우리의 自主獨立을 妨害하는 外來勢力과 反民主主義的 反動的 모든 勢力에 對한 徹底的 鬭爭을 通하여 完全한 獨立國家를 建設하여 眞正한 民主主義 社會의 實現을

24) I, p.64.

25) I, pp.64-65.

26) I, p.89.

27) I, pp.93-94.

期”하며, 안으로는 “朝鮮人民大衆生活의 急進的 向上과 政治의 自由를 確保”하는 한편, “밖으로는 蘇聯 美國 中國 英國을 비롯하여 平和를 사랑하는 모든 民主主義的 諸國家와 提携하여 世界平和의 確保에 努力”한다.<sup>28)</sup>

또 이날에 발표된 政府部署의 명단을 보면 다음과 같다:<sup>29)</sup>

主 席 李 承 晚	副 主 席 呂 運 亨	國 務 總 理 許 憲
內 政 部 長 金 九	外 交 部 長 金 奎 植	軍 事 部 長 金 元 鳳
財 政 部 長 曹 晚 植	安 保 部 長 崔 容 達	司 法 部 長 金 炳 魯
文 教 部 長 金 性 洙	宣 傳 部 長 李 觀 述	經 濟 部 長 河 弼 源
農 林 部 長 康 基 德	保 健 部 長 李 萬 珪	遞 信 部 長 申 漢 熙
交 通 部 長 洪 南 杓	勞 動 部 長 李 胄 相	書 記 長 申 康 玉
法 制 局 長 崔 益 翰	企 劃 局 長 鄭 栢	

## 2. 임시정부와 人共의 대립

해방후 “建準”이 치안부재와 “권력의 공백을 메우”<sup>30)</sup>면서 하나의 정권기관으로 급속히 부상됨에 따라 건준과 이를 모태로 탄생한 人共에 대한 반격은 거세게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반격은 크게보아 두가지 측면에서 나타났다. 하나는 건준의 “치안”활동에 대한 반격이었고, 다른 하나는 “人共”의 “政權”활동에 대한 반발이었다. 건준의 “치안”활동에 대한 반격은 처음에는 일본경찰과 일본군부에 의해,<sup>31)</sup> 그리고 후에는 미군정 당국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반면<sup>32)</sup> 人共의 “政權”활동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임정을 옹립하는 韓國民主黨에 의해,<sup>33)</sup> 후에는 임정<sup>34)</sup>과

28) I, pp.99-100.

29) I, pp.100-101.

30) 심지연, 앞의책, p.15.

31) I, pp.17, 17-18, 36, 48, 76-78, 172.

32) I, pp.65, 71, 73, 78-79, 83, 85, 89, 102.

33) I, pp.54-56, 60-63, 97, 206-207, 273-274, 541, 551-663; 人共과 韓民黨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심지연 참조.

34) I, pp.28-31, 46-48, 49.

미군정 당국에 의해 이루어졌다.<sup>35)</sup>

특히 입정과 인공간의 정치적 투쟁은 입정의 “法統”에 대한 인공의 “도전”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들간에 격렬한 투쟁을 보여주는 자료로는 대체로 3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당시에 유포된 流言蜚語이다. 1946년 1월 14일자 “東亞日報”에 의하면, 당시에 유포된 유언비어—특히 지방에 유포된 유언비어의 8種을 수록하고 있다. 그 수록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그一에

소작료가 三분지一로된 것은 우리 人共의 덕택이다. 평년에는 四分지一로 해 줄 터이며 水稅와 비료대는 모두 지주가 부담할 것이니 농민은 단결하여 기다리다.

그二에

우리 인공은 일인[日人]소유 전답의 소작료를 안 바치려하지만 軍정청이 자주 바치라 하니 그는 사리를 채우려는 것이다.

그三에

「아놀드」장관이 파면된 것은 우리 인민공화국을 반대한 까닭에 미국무성이 분개하여 자신도 모르는 동안 파면하여 방송으로 알았다. 「하저」중장보다 먼저 안 것은 우리 인공이다.

그四에

세계 각국이 모두 인민공화국을 건설해서 행복되게 살고있는데 하필 우리 조선만이 이런 나라를 만들지 못하게 미국이 방해하니 이런 억울한 일이 있느냐 呂선생은 벌써 無電으로 각국 원수에게 그 억울한 것을 다전했다.

그五에

한국민주당이 탁치청원을 했으므로 宋鎮禹씨가 암살되었다.

그六에

탁치를 배격 말고 우리 인공으로 모이자.

그七에

탁치를 한대도 쏘련은 약소국가의 해방자이니 걱정 말고 받도록 하자.

그八에

이 박사 김구씨 등은 늙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마치 쉬운 고목같다. 여선생이 잘 아니까 그가 대통령이 되어야지요.<sup>36)</sup>

35) I, pp.226-227, 257-260, 439, 443, 575-577.

36) I, pp.837-838.

20 특집 : 한국政治 民主化의 方向연구

두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당시 여러 정치집단들에 의해 제작·살포된 傳單을 들 수 있다. 이중에서 특히 “朝鮮愛國婦女會同盟”에서 1946년 1월 24일자로 인쇄한 “談話文”은 해방직후의 사정을 비교적 소상히 전하는 것으로 주목을 끈다.

八月十五日 直後 ○○○主宰로 建國準備委員會가 誕生하고 東震共和란 國號로 처음 組閣이 發表되었습니다.  
閣員中에 李博士 金九先生이 계시기에 가슴이 뛰었지요.  
야 벌써 臨時政府와 連絡이 있었구나 하고 感嘆했지요.  
그 後 며칠이 못 되어서 人民共和國이 생겼습니다.  
무어냐고 했더니 人民共和國이 정말 朝鮮을 爲한 政府라고요.  
臨時政府는 思想이 頑固한 老人들만 계시기 때문에  
資本主義고 舊式政權이 되어서  
資本家와 地主만을 잘 살게 하는 政府다.  
朝鮮사람의 九割이 貧民이요 勞動者인데  
그런 政府가 實權을 잡으면 朝鮮사람에게 不幸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人民과 勤勞大衆을 爲하는 人民共和國이 섰다고.  
우리는 純眞한 學生이므로 정말 그럴줄만 알았지요.  
감쪽같이 속아서 「人民共和國」萬歲도 몇번이나 불렀습니다. 宣傳이란 무엇인지 그 魔力에 끌렸던 것입니다.  
그後 臨時政府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요!  
世界의 政界에 信望이 높은 革命家들이시고  
眞正한 意味의 進歩의 民主主義政權인 것을 볼 때!  
臨時政府의 政綱을 본 사람은 누구나 다 놀랜 것입니다.  
土地는 國有로 會社 工場도 큰 것은 國有로 教育도 國費로  
有關階級 擄取階級을 없애고 瓦惠相助의 均等社會를!  
이 政府를 資本主義라고 勞動者와 農民을 피어서 離間시킨 것입니다.<sup>37)</sup>  
:

셋째로 呂運亨과 그의 주요 정치적 提携세력인 朴憲永의 記者會見내용을 들 수 있다. 먼저 呂運亨은 1945년 10월 1일 每日新報와 가진 회견에서 도대체 “共產主義者를 배격할 必要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공산주의자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피력한다.

37) I, pp.908-909.

…英國을 보라. 六·七年間 戰爭에 勝利의 功勞者 「치칠」이 물러나고 英國의 勞動黨이 勝利하였다. 그러나 赤色은 아니다. …勞動者 農民 及 一般勞動大衆을 爲하는 것이 共產主義이나[?] 萬一 그러던 나는 共產主義者로 되겠다. 勞動大衆을 爲하여 餘生을 마칠 것이다. 右翼이 萬若 反動的 彈壓을 한다면 오히려 共產主義 革命을 促進시킬 뿐이다. 나는 共產主義者를 겁내지 않는다. 그러나 急進의 左翼理論에는 나는 正當하다고 안본다.

人民이라면 赤色이라고 함은 小學校 一年生과 같은 사람이라 하겠다.<sup>38)</sup>

∴

벌써 百年前에 美國에서는 人民을 主權의 本體로 보지 아니했는가<sup>39)</sup>

다음으로 呂運亨은 人共이 革命的으로 수립된 政權이며, 따라서 혁명적 상황에 의해 정당성을 갖는 政府라고 주장한다.

…三千萬 朝鮮同胞는 過去 三十六年間 流血의 鬪爭을 繼續해 왔으므로 革命에 依하여 오늘날 自主獨立을 獲得한 것이다. 그러므로 革命에는 忌憚이 必要치 않다. 革命家가 먼저 政府를 組織하여 人民의 承認을 받을 수 있다. 急激한 變化가 있을 때에 非常措置로 생겨난 것이 則 人民共和國이다. 人民이 承認한다면 朝鮮 人民共和國과 그 政府는 그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當初에 聯合軍이 進駐한 하던 即刻에서 國權을 받아 들일 수 있도록 準備한 것이 則 朝鮮 人民共和國의 內閣이었다. 弱體이던 補強하여 難國에 處할 수 있게 하겠다. 革命初에는 革命團體가 組閣하는 것이요 人民이 組閣하는 것이 아닌은 孫文을 보아도 알 것이다.

끝으로 呂運亨은 “重慶臨時政府”가 다른 국내의 정치세력들과 평등한 관계에서 경쟁할 것을 촉구한다.

重慶臨時政府를 支持歡迎하는 것은 呂運亨이가 가장 強하다. 사람은 感情이 있는 것이니 十餘年 동안 同苦同樂하면서 굶고 애쓰고 일하던 사람들의 政府인므로 同志愛로 가장 사랑하게 된다. 第一次大戰이 끝난 後 己未年에 上海에서 巴里에 代表를 보내고 朝鮮民族指導機關을 說置 三月一日 國內에서 獨立運動에 呼應하여 上海에서도 三月一日 臨時政府를 樹立 對日 反抗이 目的이었다. 十年 五個月 동안 合力하다가 朝鮮에 잡혀왔다. 그러므로 臨時政府에 敬意를 表한다.

[그러나]臨時政府(重慶)만을 支持한다는 法은 없으리라고 생각하며 重慶臨

38) I, pp.176-177.

39) I, p.175.

## 22 특집 : 한국政治 民主化의 方向연구

時政府도 絶對 支持는 要望치 아니한다. 國內에 있는 모든 政治運動을 無視할 그네들은 아니다. 나는 海外政權을 歡迎한다. 現在 重慶臨時政府外에 美國에도 두 派가 있다. 延安에도 西伯利亞에도 政黨이 있어서 五個의 政府가 있다. 따라서 한 政府만 支持한다고 하면 海外同志를 그만큼 紛糾시킬 뿐이다. 그러므로 海外同志를 歡迎해 들어서 國內에 政府를 組織하여야 한다.<sup>40)</sup>

요컨대 呂運亨에 의하면, 重慶臨時政府는 당시에 이미 수립된 5개의 정부 — 즉 미국에 2개, 연안에 1개, 시베리아에 1개, 그리고 重慶에 1개 — 가운데 하나로서, 자신만을 “唯一無二한 正統한 朝鮮政府”로 주장할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정치세력이 “「페어 플레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뒤에서 “남의 대가리를 까는” 더티플레이는 하지 말자는 것이다. 아울러 呂運亨은 “美軍政當局”에 대해서도 “朝鮮사람들의 政黨이 싸움을 하는 境遇에는 干涉할지라도 그밖에 모든 것을 일일이 干涉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한다.<sup>41)</sup>

臨政의 唯一法統을 부인한 呂運亨의 입장은 그후 朝鮮共產黨의 朴憲永에 의해서도 재천명되고 있다. 朴憲永은 金九가 還國한지(11월 23일) 20여일이 지난 12월 12일, 한 담화문에서 “亡命政治團을 가지고 臨時政府의 行”세를 하지 말라고 일침을 가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

그들은 亡命政客으로서 國內에 들어와서 벌써 여러 날을 지냈음에도 不拘하고 마땅히 할 일은 안하고 쓸데 없는 일에만 沒頭하고 있다. 그것은 卽 亡命政府가 一種의 臨時政府인 것처럼 新聞紙 其他 宣傳運動에 全力에 全力을 傾注하고 있는 것은 統一을 爲한 努力이 아니라 도리어 分裂을 助長하는 行動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 분들이 愛國志士인 것이 틀림없다면 마땅히 國際關係와 國內諸努力을 옹계 把握하고 決코 亡命政治團을 가지고 臨時政府의 行使를 하지 말 것이오 個人資格으로 들어와 本分을 지켜야 國際信義가 서게 될 것이고 또한 統一政府樹立을 提案하고 있는 國內의 進歩的 勢力과 接近하기에 努力을 아끼지 말아야 될 것임에도 不拘하고 頑固만을 主唱함은 甚히 統一을 爲하여 遺憾스러운 것이다. 그 분들은 좀 王家의 專制的 君主的 生活의 霧圍氣에서 解脫하고 나와서 朝鮮의 人民 特別히 勤勞大衆과 親히 接觸하여 朝鮮人의 새로운 空氣

40) I, pp.175-177.

41) I, p.176.

를 呼吸할 必要가 있다. 過去 數十年間 亡命生活中에 朝鮮과 分離한 生活를 繼續하던 分들이 또 다시 國內에 와서도 그러한 非民衆의 生活의 奴隸가 되며 將來 朝鮮에 支配者를 꿈꾸고 있는 現狀은 참아 못볼 奇現狀이다. 그 分들은 反日鬪士임은 分明하니 곧 나와서 朝鮮民衆과 接觸하되 平民의 官職을 잠시 맡겨 두고서 움직임이 어떠할는지.<sup>42)</sup>

朴憲永의 공격에 대한 臨政측의 반응은 外務部長 趙素昂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나타났다. 첫 번째는 朴憲永의 담화문이 발표된 당일 趙素昂의 코멘트였다. 여기서 趙素昂은 “이미 露國의 「레닌」自身도 “우리 臨時政府”에 대해 “絕對支持”를 보낸바 있고, 최근에는 “中國의 蔣委員長 其他 美·佛도 認定”하고있는 터인데 “國內에서”는 “이를 支持는 못할 지언정 이를 否認한다는 것은 안될 말”이라고 맹렬하게 비난하였다.<sup>43)</sup>

두 번째는 그 다음날인 12월 13일, 공식적 “담화문”을 통해서였다. 趙素昂은 보다 신중한 어조로 다음과 같이 논평하고 있다.

大衆과 臨政이 接하라는 점에 있어서는 雙手歡迎이다. 臨政에서 大衆과 分離되는 듯한 傾向이 있다면 勿論 方向을 돌려서 大衆의 가운데로 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臨時政府를 亡命政府라 하여 否認하는 것은 不可하다고 生覺한다. 臨時政府는 己未年 當時에 大衆의 基礎위에서 國內大衆 支持下에 誕生된 것이 事實이고 一九二〇年 蘇聯의 「레닌」도 經濟的 文化的 政治的으로 絕對援助를 하여 왔었으며 뿐만 아니라 昨今에서는 佛·美·中 諸列國의 國際間에 充分히 大韓民國臨時政府라는 存在를 認定한 것이 嚴然한 事實이다. 그리고 臨時政府에서 「레닌」과 提携할 때에 있어서 臨時政府가 親蘇派라는 評까지도 있었다. 이와같이 蘇聯을 爲始하여 各列強과의 歷史的 事實을 共產黨에서는 스스로 忘却치 말기를 바라는 바이다.<sup>44)</sup>

42) I, p.573.

43) I, p.571.

44) I, p.581; 臨政의 性格에 관한 臨政측의 견해는 해방직후부터 꾸준히 피력되어 왔다. 이에 대해서는 I, pp.40, 49, 279, 462-463, 476, 537-538 참조

### 3. 美軍政과 人共의 대립

이상과 같이 臨政과 人共의 대립이 격화되어 감에 따라 美軍政은 2가지 원칙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였다. 첫째 南韓에서의 唯一한 합법정부는 美軍政이라는 원칙이다. 둘째 정권기관으로서의 臨政과 人共의 정치활동은 일체 금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라 美軍政은 한편으로는 臨政要人の 입국을 개인자격으로 제한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人共의 정치활동을 정당활동으로 국한코저하였다. 처음에는 金九와 臨政측이 臨政의 공식적 승인을 聯合國측에 요구하였으나<sup>45)</sup> 還國직전에 軍政當局의 요구를 수락, 개인자격으로 입국하는데 합의하였다. 金九는 還國 당시, 자신이 “個人的 資格으로 還國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나는 只今 聯合國에 對하여 臨時政府의 承認을 要求하지는 않겠으나 將次에는 承認을 要求할런지도 모르겠다. 나와 나의 同志는 個人的 資格으로 還國한 것이다.”<sup>46)</sup> 그러나 人共은 사실상의 정권기관임을 주장함으로써 美軍政과 날카롭게 대립하였다.

특히 人共의 “國號”사용과 관련하여 美軍政은 전후 4차례에 걸쳐 강력한 경고를 발하였다. 이때마다 人共은 美軍政에 불복함으로써, 양자의 관계는 惡化一路로 치닫게 되었다. 美軍政의 첫번째 경고는 1945년 10월 10일 軍政長官 아놀드가 일종의 “命令의 性質을 가진 要求”로 발표한 담화문이었다. 당시 이를 게재했던 每日新報는 아놀드長官의 담화문이 “發表文書로서 遺憾된 點이 있음을 認定하면서”도 軍政當局의 특별한 “要請”에 따라 新聞 “第一面에 特載”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담화문은 “自稱 朝鮮人民共和國”의 정치활동의 즉시 “停止”를 계속적으로 그리고 반복해서 촉구하는 점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나타낸다.

45) 심지연, 앞의책, pp.31-32.

46) I, pp.398-399, 449.



朝鮮이 日本의 羈絆에서 解放되었다는 것은 勿論 祝賀式과 示威行列과 雄辨大會等을 開催하여 慶賀할 만한 일이다. …社會의 安寧秩序를 攪亂치 않고 治安을 紊亂치 않으며 朝鮮政府의 整然한 行政을 妨害치 않는 限 이러한 幼稚한 行動이 비록 老年者의 所爲라 할지라도 浮雲流水에 부칠 수 있을 것이다.

北緯三十八度以南의 朝鮮에는 오직 한 政府가 있을 뿐이다. 이 政府는 「맥아더」元帥의 佈告와 「하지」中將의 政令과 「아놀드」少將의 行政令에 依하여 正當히 수립된 것이다. 「아놀드」軍政長官과 軍政官들이 嚴選하고 監督하는 朝鮮人으로 組織된 政府로서 行政 各 方面에 있어서 絶對의 支配力과 權威를 가지었다. 自薦自任한 官吏라든지 警察이든가 國民全體를 代表하였노라는 大小의 會合이라든가 自稱 朝鮮人民共和國이든가 自稱 朝鮮共和國內閣은 權威와 勢力과 實在가 全然 없는 것이다. 萬一 이러한 高官大職을 僭稱하는 者들이 興行的 價値조차 疑心할 만한 傀儡劇을 하는 俳優라면 그동안 即時 그 劇을 閉幕하여야 할 當할 것이다. 萬一 或種의 保安隊가 安寧秩序를 維持하기 爲하여 法律에 抵觸치 아니하고 幼稚하나마 誠意껏 行動을 하였다면 이제는 解體하고 各其 職場으로 돌아가 過도에 必要한 食糧과 衣服과 住宅을 確保하도록 努力하여야 할 것이다. …

萬一 이러한 傀儡劇의 幕後에 그 演劇을 操縱하는 詐欺漢이 있어 어리석게도 朝鮮政府의 正當한 行政事務의 一部分일지라도 斷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마땅히 猛然覺醒하여 現實을 把握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演出을 當然 停止하여야 할 것이다.

最近에 某新聞에 朝鮮民衆을 欺瞞하는 記事가 있다. 即 一九四六年 三月一日에 全國人民代表大會를 召集하여 虛偽選舉를 發表한 것이며 또 그 選舉에 있어서 反逆者를 除하고는 十八歲以上の 모든 男子에게 投票權을 賦與하겠다고 約束한 것이다.

…이 選舉權은 朝鮮政府가 指導한 方法과 時期에만 行使할 수 있는 것이다. 以上과 같은 非法의 選舉를 提案한 個人이나 團體는 軍政府에 對한 가장 重大한 妨害物이요 兼하여 軍政府와 또는 軍政下 又是 朝鮮政府의 合法的 權威에 對한 公然的 反抗의 行動이나 萬一 朝鮮民衆이 새로 얻은 言論의 自由 出版의 自由 及 多年間 받은 모든 拘束에서 解放된 自由를 貴重히 여긴다면 民衆의 道義의 指導力을 一層 奮發하여 이러한 어리석고 惡質의 人物들로 하여금 以上 自由를 蹂躪치 못하게 할 때가 왔다. 朝鮮人民은 이런 無責任한 人物들로 하여금 國家의 安寧秩序를 威脅하는 일이 없도록 斷然코 嚴禁하여야 할 것이다. …<sup>47)</sup> (방점은 필자의 것임)

47) I, pp. 226-227.

아놀드長官의 담화문에 대해 人共측은 人民委員會와 中央人民委員會의 이름으로 각각 반박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人民委員會의 성명서는 먼저 우리 民族이 “日本帝國主義를 打倒하여 朝鮮에 解放의 길을 열어 준 聯合軍에 對하여 …언제든지 感謝하여 마지 않으며 더구나 朝鮮의 獨立을 爲하여 朝鮮에 進駐한 美·蘇兩軍의 恩惠가 莫大함을 …銘心하고 있”음을 환기시킨다. 그러나 “朝鮮의 政府는 全朝鮮의 政府이어야 하며 朝鮮의 問題는 全體로서 提起되고 解決되어야 하며 이 問題의 完全한 解決은 오직 朝鮮民族自身的의 손으로만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힘으로서 “三十八度以南의 朝鮮政府云云”은 言語道斷이라고 질타한다. 뿐만 아니라,

朝鮮人民共和國의 誕生은 美軍上陸以前의 既存事實이며 第二次 全國人民代表大會가 一九四六三月一日을 期하여 召集되는 것은 第一次人民代表大會의 決議에 依한 것이다. 新國家가 建設되려 할 때 人民의 總意를 모아야 하는 것은 國際憲章의 精神이며 規定이다. 이를 爲하여서는 全國人民代表大會의 召集이 當然한 것이며 또한 最新이 方途라고 確信한다. …

日本帝國主義의 機構를 그대로 殘置하며 日本帝國主義赤狗輩의 跳梁을 許容하면서 甚至於는 日本帝國主義軍警의 武裝이 解除되지 못한 이 때에 朝鮮人에게 職場으로 돌아가라든가 物價의 調節이 없이 職場에서 過冬準備를 하라든가 하는 것은 「緣木求魚」에 不外하다. 이러한 態度와 方法으로 朝鮮問題에 臨한다면 軍政當局은 相當한 試鍊에 逢着할 것

이라고 위협까지 不辭하고 있다.

뒤이어 발표된 中央人民委員會의 성명서는 “「아놀드」군정장관”의 성명을 “愚弄의 侮辱的 聲明”으로 규정하고, 또 이것을 “反人民政策의 集中的 表現”으로 성토했다. 물론

軍政은 우리와 對立하는 存在가 아니다. 軍政은 모름지기 우리의 完全獨立을 後援할 것이요 우리의 統一政府樹立을 助成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될 수 있는대로 速한 期限內의 軍政撤廢를 要求하며 期待하나 軍政一般을 反對하며 이에 對立하려고 하지도 않으며 또 그러한 公要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 反人民政策에는 絶對로 反對한다.

고 밝힌다. 中央人民委員會의 성명서와 人民委員會 성명서의 공통점은 “朝鮮人民의 總意를 되고 國際憲章의 精神에 根據를 둔 朝鮮人民共和國이 이제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儼然한 存在”라고 주장한 점이다.<sup>48)</sup>

美軍政의 두번째 경고는 6일후인 1945년 10월 16일(이날은 李承晩박사가 귀국하는 날이기도 하다)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 「존·알·하지」中將이 “美軍政”에 대해 내린 “定義”에서 발견된다. 하지 사령관은 이 정의에서 “軍政廳”을 “過渡期間에 三十八度 以南의 朝鮮地域을 統治 指導 支配하는 聯合軍最高司令官指導下에 美國軍으로서 設立된 臨時政府”라고 규정하고, 또 이 “政府”는 “南部朝鮮에 있어서 唯一한 政府”라고 못박는다. 이어서 그는 “朝鮮國民이 軍政의 法令에 順應치 않거나 또는 協力を 게을리”한다면, 이것은 朝鮮의 “完全獨立”과 “全盛”의 시기를 그만큼 “遲延”시키는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참으로 朝鮮國家와 國民의 福利를 生覺하는 政黨이라면 먼저…美軍政을 支援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호소한다.<sup>49)</sup> 그러나 「하지」中將의 “定義”에 대해 人共측은 별다른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다.

美軍政의 세번째 경고는 한달후인 1945년 11월 22일 軍政장관 「아놀드」소장이 人共의 “全國人民委員會 代表者大會”의 開會式에서 행한 연설가운데 나타나 있다. 이 연설에서 「아놀드」장관은 3가지 점을 특히 강조하였다. 첫째 “軍政은 特殊한 어떤 政黨이나 團體를 치우쳐 支持하지 않는다. 軍政과 協力하여 朝鮮建國에 努力하면 누구나 이를 歡迎한다,” 둘째 “軍政廳은 只今에 있어서 朝鮮”내의 “唯一한 政府”이다; “이것은 日本이 降伏한 후 朝鮮의 完全獨立이 成立되기 까지의 過渡의 다리(橋)의 役割을” 할 것이다, 셋째 “朝鮮의 三千萬 同胞는 하루 바빠 統一하여 그 實力을 보여주어야 하겠다. 그럼에는 時急히 軍政에 協력이 必要”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工場에선 生産을 農村에서는

48) I, pp. 228-230.

49) I, pp. 259-260.

穀食을 내어놓고 國民들은 稅金을 바치”는 일이다.<sup>50)</sup>

다른한편 “全國人民委員會 代表者大會”에서는 “人民共和國政府와 軍政과의 交涉經緯”에 관하여 許憲의 보고가 있었다. 이 보고에서 許憲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히고 있다. 즉

[1945年]十月十八日 呂運亨이 軍政廳에 出顯하여 「아놀드」軍政長官으로부터 勸告的 內容의 公文을 手交받았다. 그 內容은 「一國內에 二個의 政府가 있을 수 없으니 三十八度以南 朝鮮에 있어서는 軍政廳이 唯一한 政府인즉 朝鮮人民共和國政府는 解消함이 마땅하니 即時 解消하고 政黨으로 存在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었다. 中央人民委員會는 이 報告에 接하여 討議… 各委員이 政府가 存在할 수 있는 論據를 慎重研究하였다. 그 結果 法理論上으로 볼지라도 國際法上으로 보아 統治權을 가진 軍政이 있으면서 同時에 그 民族自身的 政府가 存在할 수 있으며 또 歷史上으로 보아도 戰勝國의 占領下에 있는 戰敗國家에 있어서도 亡命政府가 依然히 國外에서 政府로써 活動하고 있었다. 또 一個國안에 主張을 달리하는 둘以上的 政府가 있었던 歷史的 事實이 嚴然히 있었음에 비추어 中央委員會는 이 正當한 主張을 軍政長官에게 通告하기로 決議하고 呂運亨氏는 十月二十九日에 이 決定을 軍政長官에게 傳達強調하였던 것이다. 其後… (許憲은) 十一月十日에 軍政長官과 面談하게 되었고 十一月十一日에 軍政長官과 第二次 그리고 十一月十二日에는 …直接 「하지」中將과 亦是 이 問題로 會談하였고 同 十九日에 軍政長官과 第三次 會談을 하였지만… 最初의 主張으로 오늘까지 끌어 왔다는 내용이였다.

이에 “全國人民委員會 代表大會”는 첫째 人共의 “解體問題의 出處가 決코 美軍政의 意見이 아니고…反動勢力的 離間策이라는 것,” 둘째 “「人民共和國」은 南北朝鮮을 統一한 全朝鮮民衆 總意로 된 統一政府인 以上 三十八度 以南에서만 있는 美軍政當局의 意見만으로 그 解體를 強要함은 不當하다”는 것, 셋째 “「朝鮮人民共和國」이란 國號”를 “死守”하고 “끝까지 「朝鮮人民共和國 死守의 決意를 굳게하고 앞으로 美軍政에 對하여 正當한 協力을 하기를 盟誓하면서 「朝鮮人民共和國」의 存在를 主張하는 決議文을 …作成 美軍政廳에 提出할 것을 決定하”였다.<sup>51)</sup>

50) I, p.439.

51) I, pp.438-445.

全國人民代表者大會에서 채택된 聲明書를 보면 人共和 軍政이 상호모순적인 것이 아닌 양립가능한 관계임을 선언하고 있다.

…우리가 以前에도 屢屢히 言明한 바와 같이 中央人民委員會 乃至 「朝鮮人民共和國」의 存在는 美軍進駐以前의 既成事實이며 또 法理論의으로나 國際的 慣例로 보나 軍政과 矛盾對立 되는 것이 아니라 朝鮮에 있어서의 最高統治權을 가진 聯合軍의 軍政이 朝鮮人民의 政府[즉 人共]에 行政權을 一任할 수도 있고 或은 이것[즉 人共]을 通하여 行할 수 있다. 그러므로 朝鮮人民의 自主의 政府가 存在한다 하여도 軍政下에서 그것은 軍政과 同格으로 併立 乃至 對立하는 것은 아니다. 軍政을 協助하는 限 그것은 機關으로서 存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意味에서 우리는 三十八度 以南의 朝鮮에 있어서의 美軍政이 우리에게 行政權을 一任하지 않으며 또는 우리는 通하여 行政하지 않는다는 것을 遺憾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斷然코 그것을 怨望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도리어 軍政이 朝鮮人民을 爲한 것이며 朝鮮의 完全獨立을 促成하고 있는 것인 限 軍政에 積極的으로 協力하는 한편 完全獨立이 實現되는 날을 爲하여 自主의 政府를 準備하려는 것이다...<sup>52)</sup>

人共측이 國號死守를 결의하고, 軍政측의 “解消”명령을 거부한지 20여일이 지난 동년 12월 12일 美軍政當局은 마침내 「하지」中將의 성명을 통해 人共에 대한 4번째 경고를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을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내가 統率한 美軍이 朝鮮에 進駐하기 前에 朝鮮人民共和國이라는 團體가 組織되었다. 이 團體의 名稱이 表示하는 바와 같이 이 團體는 한 政黨이라기 보다 오히려 政府로 組織된 것이다. 그리고 이 團體의 指導者들도 朝鮮人에게 이것이 그들의 新政府라고 宣傳한 것이다. 이것이 民間에 많은 誤解의 原因이 되었고 朝鮮獨立을 援助하려는 나의 努力에도 支障이 되어왔다. 團員中에는 非難할 餘地가 없을만한 理想을 가지고 多年間 日本統治에 反抗하여 不斷奮闘한 愛國志士도 있다. 그러나 이 團體는 多數한 朝鮮民衆에게 自己네가 朝鮮을 統治해 가는 것 같이 믿도록 그 團體를 組織하고 運用해 온 것이다. 이 團體가 聯合國에서 그런 職權을 받지 않고 政府의 職能의 一部라도 引受했다는 것은 그 團體指導者들이 理勢를 잘 理解치 못한 듯한 點도 있지만은 그들의 過失은 過失이다. 어찌되었던 朝鮮人民共和國의 名稱과 行動으로 因하여 생기는 誤解

52) I, p.445.

### 30 특집 : 한국政治 民主化의 方向연구

로 어떤 民衆은 朝鮮人民共和國 旗幟下에 軍政에 反抗하며 또는 公公然히 或은 秘密裡에 軍政行政에 反對까지도 해 왔다. 그리하여 우리가 다 같이 渴望하는 朝鮮獨立促成을 實地로 遲延시켰고 여러분의 나라에 經濟安定樹立에도 重大한 遲延이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群衆이 다 朝鮮人民共和國團員이라고 믿기는 어려운 일이다. 朝鮮人民共和國指導者와 累次 會談한 結果 그들도 이런 事態를 잘 안다고 表示했고 잘못했다는 것도 自認했고 十一月二十日 京城에다 自己에 代表者大會 開催만 내가 許諾해 준다면 自己네 團體를 오직 한 政黨으로만 再組織하여 朝鮮民衆에게 自己네 態度를 明示하겠고 또 한 걸음 더 나가 自己네 團員에게도 모든 誤解가 없도록 하겠고 自己네 正團員은 將來 行動으로 朝鮮의 獨立準備와 經濟安定策樹立에 있어 軍政에 協助하겠다는 것을 保障하겠노라고 내게 言約한 것이다. 그 指導者들은 自己네 言約한 바를 充分히 實行하리라는 것과 앞으로 생길 誤解를 除去하기에 自己네의 全力을 다 하여 信義있게 해 주리라는 것과 朝鮮의 福利를 爲하여 自己네의 私慾을 超越하여 努力하리라는 點에 나는 充分한 信任을 가지고 그들의 大會를 許諾했고 警察로 그 大會를 保護하기까지 해 준 것이다.

完全한 協力과 諒解가 成立되리라는 나와 同一한 信念을 가지고 「아놀드」少將도 그 大會 開會式에 參席했던 것이다.

그 大會가 끝난後에 나는 매우 놀랐고 失望하였다. 왜그런고 하니 비록 말로는 軍政을 돕고 協力한다고 했을지라도 指導者와 代表者들은 그 大會를 이리저리 利用하여 自己네의 團體가 朝鮮政府인 것 같이 層層 더 自己네를 擴大시킨 것이다. 그리고 軍政廳은 自己네의 團體가 政府로 行勢하려고 하는데에 助長하고 教唆한다는 暗示를 주었다. 그리하여 各地에 있는 朝鮮人 心中에 적지않은 混亂狀態를 남겨놓은 까닭이다. 換言하면 事態를 完全히 하겠다는 自己네의 約束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이 失信이 있는 까닭으로 나는 오래동안 참고 생각한 後 公衆의 諒解를 爲하여 聲明의 必要를 느낀 것이다. 朝鮮人民共和國은 그 自體가 採擇한 名稱如何를 不問하고 어떤 意味에서든지 「政府」도 아니고 그러한 職能을 執行할 何等權利가 없다. 南部朝鮮에서 使用하는 唯一한 政府는 聯合軍最高指揮官의 命令에 依하여 樹立된 軍政이 있을 뿐이다....

...앞으로 誤解와 假裝된 騷動을 防止하기 爲하여 어떠한 政黨이든지 政府로 行勢해 보려는 行動이 있다면 이것은 非法的 行動으로 取扱하라고 나는 美駐屯軍과 軍政廳에 命令을 내렸고 美軍占領地域內 어느 곳에서든지 聯合軍의 明示 賦與한 權利가 없이 政府行勢를 하는 政黨이 없도록 保障하기 爲하여 必要한 萬般措置를 即時 해 놓으리라고 命令을 내렸다.

이 指示는 어떤 團體의 合法的 活動이나 또 政黨이 政黨으로만 活動한다면

자기 對하여 어떤 모양으로나 干涉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虛偽 提說에 그릇 引導된 朝鮮愛國者 여러분을 痛意하려는 意思도 없다.<sup>53)</sup>

하지中將의 성명서가 발표되자 다음날 즉 12월 13일 人共의 中央人民委員會는 반박문을 발표 첫째 “美軍政當局과 朝鮮人民共和國과의 交涉” 과정을 상세히 밝히면서, 「하지」中將의 “聲明書” 가운데에는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는 것 둘째 軍政의 人共에 대한 태도가 지나치게 편파적이라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이 반박문은 다음과 같이 끝맺고 있다.

…大韓民國臨時政府라는 用語가 公公然히 廣範圍하게 使用되고 있으며 閣議가 報道되는데 對하여서는 一言半辭의 言及이 없는 點이라던지 韓國民主黨이 朝鮮人民共和國의 解體要求를 決議한 事實이라던지 聯合軍의 明示 賦與한 權利가 없이 政府 行勢를 하는 亞亞의 表現이라던지 中央人民委員會의 聲明 乃至 「하지」中將에 對한 回答을 全然 沒却한 것이라던지 이 모든 點에 있어서 「하지」中將의 聲明은 中將自身の 主觀的 企圖가 어디 있던 間에 客觀的으로는 民衆의 疑惑을 誘發하며 人公에 混亂을 招來할 것이니 우리는 이에 遺憾의 뜻을 表明하지 않을 수 없다.<sup>54)</sup>

#### 4. 맺 는 말

이상으로 臨政과 人共간의 대립, 그리고 이와 관련된 美軍政과 人共간의 갈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갈등과 대립이 바로 “民主主義”의 이름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런 뜻에서 우리에게 民主主義가 희망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저주처럼 보이기도 했다. 이와같이 韓國民에게 독특한 의미를 갖는 民主主義에 관하여 다음 장에서 보다 상세히 논하기로 한다.

53) 1, pp.

54) 1, p. 584.